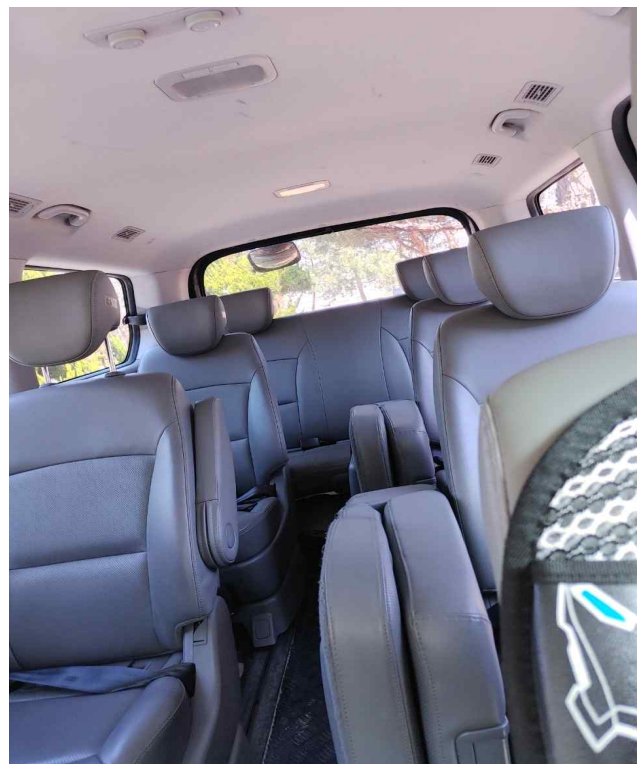


연구원 소식

연구원 차량 인수

지난 2017년 3월부터 장기 렌트로 사용하던 차량을 4월 1일 연구원 소유 차량으로 인수하고 번호판 교체체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회원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 짜에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인승이나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는 9인 내외가 최적의 공간입니다. 소규모 답사부터 먼 길 이동까지 차량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연구원 사무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종 면허를 소지한 35세 이상인 회원은 누구나 운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옳지 못한 복수 - 1954년 4월 16일

4·3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슬>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괴물 같은 이가 등장한다.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지만 무력을 행사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치 듯 대하던 그들은 서북청년단이었다. 서북이라는 뜻은 관서와 관북을 통틀어 말한 것으로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북한 정권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만든 조직이 바로 그것이었다.

서북청년단은 1946년 11월 30일 지금도 남아 있는 종로 YMCA 회관 강당에서 그 깃발을 처음으로 올렸다. 그들이 그 실력을 선보였던 것은 1947년 3월 1일 전국 각지의 3·1절 기념식장에서였다. 이들은 좌익 계열의 기념식을 습격하여 잔인한 테러를 일으키며 그 이름을 이 땅에 날리기 시작했다.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군인이면서 서북청년단 회원이었다.

당시 제주도를 휩쓸던 이 서북청년단의 사업부장이 김성주다. 평안도가 고향으로 꽤 유복하게 살다가 해방 이후 일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그는 서북청년단 부위원장까지 올라가 이승만의 수족 노릇을 했으나 청년단의 분화와 이합집산 과정에서 팽을 당했다. 서북청년단 위원장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문봉제를 비롯한 주류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린 것이 원인이었다.

1953년 여름 헌병대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연행된 그는 "정부시책에 불만을 품고 사회민주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이승만 대통령 살해음모를 꾸민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0개월 동안 11차례의 공판을 받고 7년 징역을 구형받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954년 4월 16일 밤, 서울 신당동에 있던 헌병사령관 원용덕의 집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날 저녁 형무소에서 끌려나온 김성주는 원용덕의 운전병이었던 임정수 상사에 의해 총살되고 시체는 곁에 있던 방공호 속에 던져졌다. 1954년 4월 17일 예정되었던 선고 공판장에 간 가족들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통보만 받고 돌아섰다. 이틀 후 석간 신문에 김성주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국방부 발표가 조그맣게 실렸다.

전쟁 직후인데다 이승만이 사사오입 개헌 이후 정적들에게 사법살인을 지시하던 때, 그의 가족들은 시체라도 돌려주라고 아우성쳤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변호인 없는 사형선고'와 '입회인 없는 사형집행'이라는 '의문사'로 남겨질 뻔한 이 사건은 1955년 국회에 날아온 투서 한 장으로 발각 뒤집혔다. 김성주가 원용덕의 부관에게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실린 투서가 날아들고 김성주의 가족이 다시 "유골이라도 돌려달라"는 탄원을 제출하자 유진산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원용덕은 조사에 불응했다. 여기다 더해 여당은 지속적인 방해공작을 펼쳤고 결국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같은 해 10월 보고서 한 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되었다. 그나마 이 보고서도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이 동시에 게재된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요상한 모양새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4월 혁명으로 막을 내리자 장막에 가려졌던 내용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김성주의 가족이 원용덕을 비롯한 군 장성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자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때 1954년 당시 원용덕에게 전해진 이승만의 친필 영문 편지가 드러났다.

“김성주는 내가 임명한 문봉제를 해치려는 자이며 손원일 국방장관에게도 말했으니 극형에 처하라...너는 잔말 말고 즉시 내 명령대로 처단하라”(한겨레 신문 같은 기사 中)

이승만이 자신의 정적과 배신자에게 얼마나 무자비했던가를 증명하는 편지를 왜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이로 인해 원용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원용덕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고 사건 관련자는 모두 천수를 누리며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했다. 김성주는 총살 이후 해방 이후 '청년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서북청년단 부단장으로 복무한 그의 활동이 '청년운동'이란 단어에 걸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할 일이다.